**제2 RUTC 시대의 축복-치유 사역의 축복과 미션(출15:22-27) 11/26/2017**

26절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제 2RUTC 운동의 “치유 사역의 축복과 미션”에 대해 나누겠다.

“치유”, 21세기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단어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미 예언된 것이다(딤후3:1).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다. 가장 먼저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다.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많아서 거의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준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이다. 그 다음이 마음의 고통일 것이다. 불안감, 두려움, 우울증, 그거 해결하려고 빠지는 중독증(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 수없는 중독들), 나중에는 공황장애, 정신분열까지 겪게 된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영적인 고통이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버리니까 시달린다.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는 살인, 테러, 사회문제가 된다. 꼭 붙잡을 것 세가지 있다.

1.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26절).

왜 하나님은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1)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만드신 이가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인간에게 성경은 한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한다. 인간의 그 모든 실패, 고난, 고 통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왔다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나무는 흙에서 살 고,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 고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한 성경이 창3장이다.

2) 창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문제, 고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① 첫 번째 고통은 원죄의 저주다. 첫 인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된 저주다(창3:16-18).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다.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이 시작된 다는 의미다. 남자는 평생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모든 병이 여기서 오는 것이다. 마음의 고생, 오래 참고 버티다가 어느날 터지는 것이다(우울증, 공황장애). 육신의 고생, 너무 고생하며 살다보니 몸도 다 망 가지는 것이다(스트레스, 신경성, 암). 더 무서운 것은 땅도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환경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② 두 번째의 고통은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계속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마귀다(요10:10)

나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요8:44). 그래서 각종 종교우상을 만들어 귀신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는 것이다. 마귀가 살아서 영적 대물림을 주는 것이다.

③ 세 번째 고통은 영원한 지옥 저주이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영적 문제로 실패하고 고통 당하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창3:19). 무서운 것은 육은 흙으로 가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다(히9:27).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지은 죄를 해결 못하고(롬6:23), 그 죄의 권세자 마귀를 따라 간 것이다(마25:41)

3) 하나님이 이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분이 원죄의 저주(롬5:19)와 우리 각자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사53:5).

이 분이 부활하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창3:15),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겠다는 것이다(행10:38)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것이다(막16:17-18)

2.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순서가 있다(치유 사역의 시간표)

1) 영혼 치유(영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계3:20), 나는 하나님의 자 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요1:12). 자녀 되는 순간 우상 숭배하며, 운명 저주, 마귀에게 시달리면 살던

내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다(요3:5).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고후5:17). 소속이 바뀐 것이다(요5:24)

2) 마음 치유, 생각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정신치유).

①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문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체질이다.

사단이 오랫동안 틀린 생각, 저주받을 생각을 각인시켜 놓은 것이다(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것이 쓴 뿌리, 본문으로 말하면 쓴 물(23절의 “마라의 쓴 물”)처럼 내 감정 속에 남아있다. 삶의 체질이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체질로 굳어져 있다.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만 남은 것이다.

② 어떻게 바꾸냐? 26절에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집중), 말씀을 따라 가라(묵상과 적용)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히4:12),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시119:50), 말씀으로 응답하시고(요15:7),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엡6:17). 말씀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포럼)

③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원받고도 계속 마귀에게 속고 당한다(엡6:11) 실제로 염려, 두려움, 불신앙에 빠지면 온 몸에 기운이 빠져나간다. 낙심할 때마다 심장 뛰는 횟수가 달라진다. 미움 분노가 생길 때는 혈관이 막힌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답답해진다.

3) 이 영혼 치유, 마음 생각 치유하면서 몸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호흡을 깊이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으라(먹지 못해서도 문제이고 너무 먹어서도 문제다)

이 세가지를 하면서 24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보라.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관계, 경제까지 살아난다.

3. 치유 사역의 결론이다. 마라의 쓴 물이 치유되고, 이스라엘이 들어간 곳이 “엘림”이라는 지역이다.

거기에 샘 열둘과 종려나무 칠십주가 있었다고 했다. 뭐가 생각나는가? 12사도와 70인 평신도제자의 비밀이다.

1) 지금 내게 문제와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치유 받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시간표대로 따라가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2)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는 치유된 자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치유 받을 자들이 와야 하는 곳이다(눅5:31-32)

그래서 참 교회는 서로 판단과 비방을 멈추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엡4:31-32)

3)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미션 홈, 치유 학교, 치유 센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다.

성도 각자가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치유하는 교회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렘넌트 중에는 앞 으로 미래를 치유하는 치유 전문인들도 나와야 한다. 참 치유의 축복과 사역이 회복되기를 축원한다.